

장기화 '식량안보' 크게 위협 장단기 대책 강구해야

곡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로 공급부족 당분간 지속·악화 전망
수입관세 면제·식생활 교육 등 대책수립, 식량안보 반드시 지켜내야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란 새로운 단어가 생길 정도로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였다. 애그플레이션이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체 물가의 상승이다.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은 2005년 이후 약 3배로 상승되었고, 2007년 하반기 이후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문제는 세계적인 애그플레이션이 기상 악화와 병충해 등의 원인으로 일시적인 공급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석유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옥수수의 연료용 소비 증대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현상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곡물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됨에 따라 발생한 공급부족은 당분간 지속되고 악화될 전망이다.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가공식품, 외식업 등 관련 산업의 가격도 급등하고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로 석유파동

시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다.

애그플레이션 악화, 재앙 될 수 있어

식량자급률이 28%로 곡물 소비량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도 크다. 특히 사료곡물의 전부를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곡물가격의 급등은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크게 상승시켜 육류, 낙농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요가 감소할 경우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애그플레이션의 영향은 전체물가의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있다. 국제곡물가격의 상승과 농작물 작황 부족으로 2007년 4/4분기 농산물 가격이 6.8% 상승하였다. 2008년 물가 상승이 가장 큰 품목도 수입 곡물을 사용하는 부침가루, 밀가루, 물엿, 달걀, 식용유 등으로 나타나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곡물 수출국들이 자국의 식량안보와 식품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수출제한조치를 강구하고 있어 애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때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크게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이후 주요 수출국들의 수출규제 조치를 보면 중국은 수출세와 수출할당제를 도입하였고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키스탄은 수출세를, 인도는 밀에 대한 수출금지, 카자흐스탄은 수출세와 수출량의 20% 국내 판매, 우크라이나와 세르비아의 수출할당 등 수출규제조치를 취했다.

전 세계가 애그플레이션 대책을 강구하였지만, 우리나라는 대책마련에 소홀하였다.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상승률이 전체 인플레이션보다 높았지만, 우리나라는 낮았기 때문이다. 이 원인은 국내 통화가치가 상승되어 환율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농산물 등 수입원자재의 국내 구입가격이 오르지 않은데 기인한다.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는 수출 의존형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원화가치가 하락되고 환율이 상승해 수입가격이 증대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외 경제가 호전되지 않는 한 애그플레이션은 더욱 악화되어 석유파동보다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비탄력성’이 애그플레이션 심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은 곡물의 수요는 증가한 반면 공급이 감소하여 곡물재고율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옥수수과 밀의 세계 곡물재고량은 1999년 이후 계속 감소하

고 있으며, 쌀은 재고량도 2000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곡물 재고량의 감소를 가져온 수요 증가와 공급감소의 원인을 살펴보자.

곡물 수요가 상승한 원인은 첫째, 1990년 중반 이후 원유가격의 상승과 지구온난화 등으로 바이오에너지 원료인 옥수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계 제1의 수출국인 미국 내 옥수수의 연료용 이용은 1995년에는 5%에 불과하였지만, 2007년에는 27%에 달하고 있다. 옥수수의 연료용 수요 증대로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 밀과 콩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옥수수로 작목을 전환하여 모든 곡물 가격이 동반 상승하였다.

둘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육류와 낙농품 소비가 증가하여 사료 곡물에 대한 수요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은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량도 1990년대 이후 연평균 4% 이상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세계 소비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국내 돼지고기 소비량 증가는 사료곡물의 수요와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미국 내 금리인하와 경기침체로 금융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여 곡물에 대한 선물 수요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의한 미국 경제의 침체와 달러화 약



한 두 봉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세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불안정으로 투자자본이 곡물을 비롯한 상품시장에 유입된 것도 되었고,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이므로 곡물 가격의 상승세도 완화되지 않을 것 같다.

곡물 공급이 감소한 원인을 보면 첫째, 기상 이변으로 호주와 유럽 등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다. 호주의 밀 생산량을 보면 2006년 2,540만톤에서 990만톤으로 생산량이 약 60% 감소하였다. 둘째, 곡물 재고율의 감소와 미래 곡물수급전망의 악화로 농산물 기대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애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농산물 생산비용이 증가하였다. 자본의존도가 높아진 농업에 있어서 석유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농산물 공급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하였다. 넷째,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들의 수출제한 조치로 인한 세계 곡물시장에 있어서 공급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선박의 해상운임료도 지난 2년간 약 3배나 상승되어 우리나라의 곡물 수입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애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원인은 곡물의 공급 감소와 수요증대로 설명되지만, 곡물가격이 폭등한 또 다른 요인으로서 곡물의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점도 가격 폭등을 가져온 한 요인이다. 식량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인간은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식량을 섭취하기 때문에 소비량을 줄이기 어렵고, 생산주기가 길며, 토지 등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공산품과 달리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 가격반응에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특성



이 애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켰다.

수출국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야

애그플레이션이 악화되면 국민이 안정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기 어려워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단기 대책으로는 먼저 곡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하여 국내 수입가격을 안정화시킨다. 또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비 보조는 물론 휴경지에 총채보리 등 사료곡물의 재배를 통해 수입사료의 의존도를 낮추며 국내에서 자급할 수 있는 쌀 소비를 촉진한다. 식용으로 수요가 제한되어 있는 쌀의 가공식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사료용 품종을 적극적으로

국제적 애그플레이션 철저한 대책 필요하다



만성적인 식량수입국으로서 식량안보용 비축곡물의 범위를 식용은 물론 사료용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식량안보를 위한 적정 비축물량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연구투자를 통하여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경제성장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제 농산물의 구입능력을 제고시키는 물론 식량외교의 강화를 통해 수출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식량안보를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개발해 곡물의 해외의존도를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곡물의 수입선을 다변화 하고, 선물과 옵션시장의 이용도를 제고시켜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확보한다. 국제곡물시장에 대한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 식량수급의 불안정이 국내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 대책으로는 먼저 청소년들에게 대한 식생활 교육을 강화한다. 육류를 중심으로 한 서양 식생활의 확산으로 성인병 발생이 늘어나고, 농산물 수입도 증가되고 있다. 쌀을 중심으로 한 전통식생활 교육을 통해 수입농산물의 수요를 줄이고, 우리 농산물로 국민의 건강과 식량안보를 지켜야 한다. 애그플레이션에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의 식량자급률 목

표치를 재점검하고,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외농업투자를 확대해 안정적인 수입처를 확보해야 한다. 만성적인 식량수입국으로서 식량안보용 비축곡물의 범위를 식용은 물론 사료용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식량안보를 위한 적정 비축물량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연구투자를 통하여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고 국제 농산물의 구입능력을 제고시키는 물론 식량외교의 강화를 통해 수출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식량안보를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Y